

第110回(臨時會)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 本會議會議錄

開會式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事務局

日 時 : 2001年4月19日(木) 午前 11時05分 開式

第110回鐘路區議會(臨時會)開會式順

1. 開 式
1. 國旗에 대한敬禮
1. 愛國歌齊唱
1. 殉國先烈 및 護國英靈에 대한默念
1. 開會辭
1. 閉 式

(司會 議事業務擔當主事 張慶洙)

(11時05分 開式)

○議事擔當主事 張慶洙 지금부터 제110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개최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一同 起立)

(國旗에 대한 敬禮)

다음은 愛國歌 齊唱이 있겠습니다. 錄音된 전주에 따라 1절만 齊唱해 주시기 바랍니다.

(愛國歌 齊唱)

이어서 殉國先烈 및 護國英靈에 대한 默念이 있겠습니다.

(一同 默念)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一同 着席)

다음은 議長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議長 金以煥 경애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평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盧張鏞 副區廳長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지역 주민과 지역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봄꽃이 만개하여 저마다의 자태를 뽐내는 화창한 봄날에 활기찬 모습으로 제110회 임시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자유와 민주주의 깃발아

래 수많은 청년학도들이 분연히 깃발을 하였던 4·19혁명이 일어난지 41년이 되는 매우 뜻깊은 날입니다. 아마 4·19혁명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은 4·19혁명의 진정한 의미와 숭고한 정신을 잘 모르겠지만 직접 보고, 체험한 저와 같은 세대의 여러분들은 그날의 포효와 함성과 감격은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4·19혁명을 통해 심어진 자유와 민주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진정한 민주주의시대를 열 수 있었다는 사실을 되새겨야 하겠습니다. 4·19혁명 41주년을 맞는 오늘 다시 한번 그날의 위업을 기리며 민주 영령들의 명복을 빕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4월 15일은 바로 10년전 지방자치의 꽃이라는 지방의회가 30년만에 부활되어 주민의 축복과 관심 속에서 우리 의회가 민의의 전당인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개원하여 올해로 꼭 10주년을 맞이한 날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는 지방자치제 실시의 가장 근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지방행정에 주민의견 반영은 물론 지역 현안과 주민 숙원사업 해결 등 주민의 대변자로서 그리고 지방행정의 감시자로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여 명실공히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자치 발전에 기틀을 마련하였다고 자부합니다. 이

렇게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과들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법적, 제도적 여건이 미비한 상태에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이 명예직으로서 오직 긍지와 사명감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과 헌신적인 의정활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제1대 의회 개원 때부터 현재까지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千相旭議員님 外 네분의 3선 의원님들에게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과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同僚議員 여러분! 본인이 제3대 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취임한지가 벌써 10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본인 나름대로 의회 위상제고와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 이를 위해 제일 먼저 의회 위상 측면에서 의회 이정표, 의회입구 현판 및 안내판설치와 구청 건물 등에 의회가 계양과 의원 예우에 관한 규정도 집행부가 제정토록 하여 전 부서에 시행한바 있습니다. 또한 홍보 측면에서는 의원들이 활발한 의정활동과 의회 소식 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의회건물 앞 화단에 있는 기존의 낡고 협소한 게시판을 철거하고 크고 현대적인 감각의 게시판을 설치하고 의회복도 벽면에는 의원 현황표와 홍보사진들을 새롭게 제작하여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의정활동 정보를 신속·투명하게 제공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반영하기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본인은 취임시 약속했던 “의회위상 제고”, “일하는 의회”와 “열린 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인은 항상 의회 위상제고와 우리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 등을 위해 의장으로서 주어진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며 의원 한분 한분의 고귀한 의견을 존중하고 좀더 많은 대화와 토론을 통한 민주적인 의회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6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되는 이번 회기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안건 등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비록 처리할 안건은 얼마 안되나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행정의 중요 집행사항 등을 의결하는 만큼 안건 하나 하나에 대해 매우 심도있는 심사와 심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매년 이맘때면 연일 계속되는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야가 메마름에 따라 전국적으로 산불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벌써 금년 들어 일부 산간지역에 부주의로 인한 산불들이 발생하여 많은 재산피해가 있었습니다. 우리 구도 전체면적의 대부분이 북한산과 같은 명산과 아름다운 자연녹지공원 등으로 둘러싸여 있는 천혜의 보고가 산불에 의하여 파괴되지 않도록 해당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의 사전대책들이 마련되어 산불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서도 소정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제110회 임시회 개최식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事擔當主事 張慶洙 이상으로 제110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개최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1時20分 閉式)

○出席議員 18人

○出席關係公務員

副 區 廳 長	盧張鐸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財 務 局 長	董連浩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保 健 所 長	李星世